

# 延邊과 韓國대학생의 祭禮意識 및 實態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rite consciousness and its actual conditions between Yanbi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on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박 미 금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미 선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Jeo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Mi Kum Park*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Mi Sun Lee*

## 〈목 차〉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 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sis the family rite consciousness and it's actual conditions between Yanbia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lived in different culture and political system from Korean students.

Total 645 Yanbian and Korean student's data was collected in Jun 1998. Statistics methods, Cronbach' $\alpha$ , Frequency, Percentage,  $\chi^2$ , t-test are used to analyse the data.

The result are follows.

First, in view of overall rite conditions, Korean students show more traditional tendency than Yanbian students.

Second, in view of ritual process which is sub-domain of overall ritual consciousness Yanbian student keep more traditional attitude than Korean students.

Third, Korean students's score which presents the need of education of rite is higher than that of Yanbian students's.

## I. 서론

家禮 즉 가정儀禮는 한 국가나 민족의 고유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생활문화로서 그 민족의 독특한 고유성과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발전시키는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家禮라고 하면 주로 四禮 즉 冠禮, 婚禮, 喪禮, 祭禮를 의미한다. 四禮 중 현대에 와서 관례는 거의 사라져가고, 겨우 성군관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婚禮는 그 의미나 절차에서도 가장 많이 서구화, 상업화되었다. 喪禮나 祭禮의 경우 편 의성이 강조되어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형식은 많이 간소화되었으나, 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인 조상숭배 意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치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 이주해 살고 있는 해외교민은 500만 가까이 추정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교민이 사는 나라가 중국으로, 그 수는 200만에 달한다(이광규, 1995). 80년대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증진되면서 중국조선족은 우리생활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와 생활세계를 공유하는 존재로 바뀌었다(한상복·권태환, 1994).

21세기를 맞이하여 중국 조선족 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도 가치관에서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국조선족의 경우 몇십 년 지속되어 오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격변기에 처해 있다. 많은 영역에서 원래의 체제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경제 및 사람들의 의식 등 많은 영역에서 공간지대가 나타나고 있다(정판웅, 1997) 또한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가 증진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중국 내의 조선족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중국조선족의 한국에 대한 모국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긍정적

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물질주의 가치관이 중국사회내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중국 조선족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철, 1997; 이순옥, 1997; 정판웅, 1997)

한국의 경우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은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서구사회의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국적없는 문화를 양상하여 민족주체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즉,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개인 및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응하며, 주체성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는데 그 동안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을 펴온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에 걸맞는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 뿌리를 찾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현대에 적합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은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치관의 혼동, 기준 및 규범의 부재는 점차로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화 되는 오늘날 민족의 주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2000년대에 한국에서는 물론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한민족을 선도해나갈 세대들이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대학생들의 조부모 세대들은 구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와 정치체제 속에서 성장해왔다. 즉 중국 조선족 대학생들은 중국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생활경험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을 경험하며, 중국의 개방화정책으로 부모세대들에 비해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들도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N세대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채 기성세대

와는 다른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문화를 진단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미래의 한민족의 생활문화를 예측하고 생활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감 확립에 필요한 공통점을 찾아서 바람직한 방향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제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고 더구나 연변의 조선족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간의 제례 의식 및 실태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 80만 가량의 중국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변조선 자치주내의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祭禮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祭禮에서의 이 두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祭禮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 밀레니엄 시대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한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집단 성원들 사이의 일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의 하나로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儀禮를 꼽는다(한상복·권태환, 1994). 중국 조선족 이민사회의 배경과 그들 나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이들은 儀禮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변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그 결과 儀禮의 절차나 의미에 있어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일 것이다.

중국조선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조선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儀禮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으며, 특히 祭禮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祭禮의 의의와 기능 및 중국 조선족의 祭禮에 있어서의 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주로 국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祭禮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祭禮의 의의와 기능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서로간에 지켜야할 질서와 행위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질서나 행위규범이 “禮”라고 할 수 있다. 즉 “禮”는 인간관계의 바탕이며 사람들의 생활양식구조이다(이정우 외, 1996). 인간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禮”를 표현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반영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家禮라고 하면 가정에서 행해지는 儀禮절차(김득중 외, 1996)를 의미하며,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가정에서 행하는 儀禮로서 家庭儀禮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家禮라고 하면 四禮 즉 冠禮·婚禮·喪禮·祭禮를 포함한 출생·백일과 돌·회갑 등 통과례를 가리키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儀禮의 형식이나 절차는 간소화되거나 서구화 또는 상업화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변화 속에서도 家禮의식은 유교적인 전통·보수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전통성과 근대성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거나 세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四禮 중 祭禮란 제사를 모시는 여러 가지 예법을 신명을 받들어 복을 받고자 하는 의례이다(김명자, 1983). 祭禮는 본래 자신의 뿌리가 되는 근본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선조의 뜻을 이어 받는 繼世思想과 조상숭배 사상의 기본(이길표·김인옥, 1997)으로 유교원리의 기본덕목인 효를 근간으로 하는 의례이다.

제사는 인류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동서고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형태를 달리하여 행해져 왔다. 유교적 祭禮는 인간존재의 시원이며 근본으로 報本反始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敬의 내면적 태도와 孝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와 꼭 같은 생활을 저 세상에서 계속 한다는 繼世思想과 우리 민족의 강력한 혈족의식으로 조상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져 제사는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이정우 외 6인, 1996). 그러나 현대의 祭禮가 대부분 유교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가정의례준칙 등으로 많이 간소화되었으며, 또한 가족의 중

교, 가치, 풍습에 따라 가정마다 각기 다르게 실천하고 있다.

전통祭禮는 효에 기반을 둔 것으로 祭禮는 자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결국 이는 전통사회 가족제도가 애정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 대가족제도는 해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祭禮에 바탕이 되었던 인간관계도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祭禮 형식과 의미도 변화되었다(김인옥, 1997)

그러나 祭禮는 그 형식과 의미가 변화하였다 해도 본질적으로 선조를 숭배하고 섬기는 조상숭배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조상숭배뿐 아니라 친족간의 유대를 다지는 혈연강화의 기능, 제사지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친지의 정을 나누며 결속을 다지게 하는 회연의 기능, 선조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본 받게 하는 교육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조상을 섬겨 후손이 복을 받고자하는 의례로서 종교적 기능을 갖는다. 이외에 현금부조, 제수부조, 가사협력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게 하는 협동의 기능 및 제사를 계기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어 가족상호간 이해와 온정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이길표, 1982; 이현숙, 1983; 홍현주, 1986; 김인옥, 1997)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祭禮에 대한 의식과 표현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祭禮儀式과 행동에 있어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 祭禮와 관련된 많은 문제 및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祭禮를 단순히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례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함으로써 개인 및 가정의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게 하는 제사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국조선족 祭禮의 현 상황

중국 조선족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형성하여 중

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에서의 법적지위, 권리, 사회참여 등이 다수 민족인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과 동등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이 문화적인 동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조선족은 구조적으로는 동화되었지만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연변거주 조선족들에게는 문화동결현상이 나타나 전통적 윤리 및 관습이 상당량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된 조선족 사회의 폐쇄성이나 경제적 낙후에 기인된 전통문화의 지속이나 수십년 전의 문화를 변화시킬 여유 없이 그대로 간직해 온 것은 아니다. 중국 조선족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중국조선족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신승철 외, 1994; 조복희 외, 1993).

중국 조선족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중국사회의 생활 조건과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나름대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형성해 왔는데, 특히 1966년에서 1976년에 이르는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관혼상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祭禮의 경우 기복사상과 조상숭배 등의 봉건적인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문화적 유산(병풍, 족자, 족보, 제사용기, 상여 등)이 대부분 파괴·소멸되었고, 이와 함께 의례와 意識은 사회주의적인 획일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최근에 나타나는 제례의식은 상당부분이 문화혁명 이후 개방의 물결을 타고 새로이 또는 다시 나타난 것들이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상숭배로서의 제사의 의식은 현재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시제나 사당제 그리고 묘제는 사라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 형성 이후 조상숭배를 봉건적 윤리관념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킨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제사는 소상과 대상 그리고 기제사뿐이다. 부모의 돌 제사(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3년상(만2년상)을 치른다. 이때에는 평소 왕래하는 친척은 다 모인다. 보통 제사에 참석하는 친척은 당일로 다녀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경우에 한하며, 참석하는 친척의 범위도 부계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나마 기제사도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제사의 의식도 특별한 형식은 갖추지 않아서,

축문이나 위패도 없다. 단지 가족이 모여 일상복 차림으로 간단하게 음식과 다과를 차리고 절을 하는데 그친다. 성묘는 1년에 한번 한식 때에만 하지만 그것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1980년경부터 도시에서는 묘를 쓰지 못하고 화장을 하므로 도시에서의 성묘는 매우 드물다. 화장 후 화장터에 마련된 장소에 골회함을 두고 그곳에 가서, 3년상을 치르면 그 다음에는 제사도 없어진다. 즉 제사를 통한 조상숭배의 전통은 적어도 도시에서는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다(한상복·권태환, 1994).

### 3. 선행연구고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祭禮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와 질문지 조사방법을 통한 실증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으나 대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연변의 조선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없으므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은 주로 한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제례관련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로 안혜숙(1993)의 연구에서는 祭禮의식은 조상숭배사상을 표현하는 儀禮로 조상과 자손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그 의미가 나타났다. 이길표·김인옥(1997)은 粟谷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祭禮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김인옥·이길표(1998)는 조선시대(16C말-17C)에 나온 禮書를 중심으로 전통祭禮를 분석한 결과 祭禮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정성으로 조상에 대한 孝를 행하는 실천적 行禮로 일상사와는 구별이 되는 상징적 의미를 두는 특별한 儀禮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질문지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로는 첫째, 주로 80년대에 이루어졌던 전통祭禮에 대한 현대인들의 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이길표, 1982; 서봉자, 1983; 한경순, 1986; 박순천, 1986; 허성미, 1987)과 둘째, 80년대 말 이후 90년대에 진행되어온 祭禮의식과 祭禮실태 및 행태에 관한 연구들(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김시월, 1997; 김인옥, 199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祭禮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조상숭배사상이나 祭禮의 의의 등 祭禮의 기본의식과 제사범위·제복·제수·제사집행자 등 유교적인 祭禮형식에 대한 의식을 연구한 결과 지역·종교·연령 등이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祭禮의식과 祭禮실태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중 도시주부의 祭禮의식과 祭禮행동에 관한 박수정의 연구(1989)에서는 종교가 祭禮의식과 祭禮행동에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祭禮의식과 祭禮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명나(1993)의 주부의 가정儀禮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종교·납편의 학력·월평균가계소득 등이 주부의 제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직업이 가정의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가족형태가 제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제사의 행태와 제사의 지속성의식을 분석한 김시월(1997)의 연구결과 제사행태는 유교적인 전통식이 가장 많았으며, 친족 공동체 의식이 제사의 지속성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직업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인옥(1997)은 주부들의 祭禮행태와 祭禮의식 및 祭禮수행정도를 연구한 결과 주로 장자가 주관하는 전통식의 祭禮행태를 나타내었고, 전통祭禮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보였으며, 연령·종교·결혼년수·월수입 등이 祭禮의식과 수행정도에 대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의 주부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성세대들의 祭禮의식이나 그 행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전통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져나갈지를 예측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祭禮문화의 우리의 전통으로 어떻게 계승하여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생활문화의 주역이 될 신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祭禮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祭禮意識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연변과 한국대학생 가정의 가정祭禮실태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祭禮意識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祭禮教育필요성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성별·거주지 등의 개인적인 상황변인, 가정祭禮실태, 祭禮意識 및 祭禮教育필요성인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가정祭禮실태 및 祭禮意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이길표, 1982; 박수정, 1988; 한재숙 외,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김인옥, 1997)를 참고로 하여 구성되었다.

척도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검증은 하였으며, 연속변인의 경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및 구성타당도 검증은 하였다.

祭禮실태 변인은 조사대상자 가정祭禮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祭祀형식, 奉祀代數, 奉祭祀者, 祭服, 祭需, 祭器 등에 관한 11문항의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祭禮意識 변인은 제사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와 제례절차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제사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祭禮觀영역(6문항)과 제례절차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제례절차의식영역(6문항)의 2 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祭禮에 대하여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전체제례의식은 Cronbach'  $\alpha$  계수가 .87, 祭禮觀과 祭

禮절차의식은 각각 .82와 .83으로 나타났다.

祭禮教育필요성인식에 관한 변인은 5점 liker척도의 단일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용어정의

1) 祭禮실태 : 제사형식, 봉사대수, 祭禮참가범위 및 제사시간 등 祭禮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가정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

2) 祭禮意識 : 祭禮를 수행하는 목표와 祭禮의 절차에 대해 자신이 근대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3) 祭禮教育필요성인식 : 대학교에서의 제례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 4. 조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즉, 가정祭禮실태 및 祭禮意識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100명을 대상으로 1998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연변지역의 대학생들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할 수도 있으므로 5명의 연변대학생을 면담을 통하여 질문지 이해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조사는 19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변과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각 350명,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35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WIN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인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표 1).

4학년이 61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포는 문과계열이 352명(58.9%), 이과계열이 246명(41.1%)으로 문과계열 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분포는 맏이가 259명(41.8%), 둘째 이하가 317명(51.3%), 외동이 43명(6.9%)으로 둘째가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분포는 핵가족이 511명(82.6%)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계 : 619명)

구 분	지 역	연변 대학생(%)	한국 대학생(%)	계(%)
	성 별	남	171(53.8)	131(43.5)
여		147(46.2)	170(56.5)	317(51.2)
계		318(51.4)	301(48.6)	619(100.0)
학 년	1 학년	104(34.2)	122(41.5)	226(37.8)
	2 학년	111(36.5)	90(30.6)	201(33.6)
	3 학년	77(25.3)	33(11.2)	110(18.4)
	4 학년	12(3.9)	49(16.7)	61(10.2)
	계	304(50.8)	294(49.2)	598(100.0)
형 제 순 위	맏이	133(41.8)	126(41.9)	259(41.8)
	둘째 이하	156(49.1)	161(53.4)	317(51.3)
	외동	29(9.1)	14(4.7)	43(6.9)
	계	318(51.4)	301(48.6)	619(100.0)
가 족 형 태	핵가족	237(74.5)	274(91.0)	511(82.6)
	확대가족	64(20.1)	26(8.6)	90(14.5)
	기 타	17(5.3)	1(0.3)	18(2.9)
	계	316(51.4)	301(48.6)	619(100.0)

\* 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조사대상자는 전체 619명으로 그 중 연변대학생은 318명(51.4%), 한국대학생은 301명(48.5%)으로 연변대학생의 수가 약간 많았다.

성별분포는 전체 619명 중 남자대학생이 302명(48.8%), 여자대학생은 317명(51.1%)으로 여학생의 수가 약간 많았다. 지역별 성별분포는 연변대학생의 경우 전체 318명(51.4%) 중 남학생이 171명(53.8%), 여학생은 147명(46.2%)으로 남학생수가 약간 많았으며, 한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301명(48.6%) 중 남학생이 131명(43.5), 여학생이 170명(56.5)으로 여학생의 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분포는 1학년이 226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201명(33.6%), 3학년이 110명(18.4%),

있으며, 확대가족이 90명(14.5%)으로 대부분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변과 한국대학생 가정의 가정祭禮실태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 가정간의 가정祭禮실태에서는 奉祀代數(p<.001)·奉祭祀者(p<.01)·祭祀날짜(p<.01)·祭需(p<.001)·祭器(p<.001)·飲福(p<.001)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즉 奉祀代數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조부모까지',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중조부모 이상' 제사를 지냈고 있었으며, 奉祭祀者는 연변대학생 가정보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장남'의 비율이 더 높게

(표 2)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가정祭禮실태의 차이 (계 619명)

변 수		집 단	연변 대학생	한국 대학생	$\chi^2$	
제사형식	전통식(유교식)		204(72.9)	205(75.6)	.56	
	그 외		76(27.1)	66(24.4)		
		계	280(100)	271(100)	551(100)	
奉祀代數	부모까지		81(29.1)	28(10.4)	68.28***	
	조부모까지		140(50.4)	99(36.9)		
	증조부모 이상		57(20.5)	141(52.6)		
		계	278(100)	(100)	546(100)	
奉祭祀者	장남		174(60.4)	203(71.5)	7.79**	
	차남 이하 또는 그 외		114(39.6)	81(28.5)		
		계	288(100)	284(100)	572(100)	
祭服	男	전통제복 또는 한복	24(8.5)	34(12.2)	2.13	
		평상복	259(91.5)	244(87.8)		
			계	283(100)	278(100)	561(100)
	女	한복	26(10.0)	21(8.0)	.67	
평상복		233(90.0)	242(92.0)			
		계	259(100)	263(100)	522(100)	
제사 참가범위	자식만		61(21.3)	41(15.0)	5.04	
	4촌 이내		138(48.1)	130(47.4)		
	5촌 이상		88(30.7)	103(37.6)		
	계		287(100)	274(100)		561(100)
제사 지내는 시간	전통대로 23~01시		131(50.0)	105(42.2)	3.15	
	가족이 편리한 시간		132(50.0)	144(57.8)		
		계	262(100)	249(100)	511(100)	
제사날짜	양력		37(13.2)	26(9.6)	10.74**	
	음력		205(73.0)	228(83.8)		
	편리한 날		39(13.9)	18(6.6)		
		계	281(100)	272(100)	553(100)	
祭需	전통의례대로		132(47.7)	211(77.9)	53.38***	
	간편하게		145(52.3)	60(22.1)		
		계	277(100)	271(100)	548(100)	
祭器	물려받은 木器나 鑪器		22(8.0)	132(49.8)	134.36***	
	새로이 마련		71(25.9)	69(26.0)		
	일상 사용하는 그릇		181(66.1)	64(24.2)		
		계	274(100)	265(100)	539(100)	
음복	음복한다		243(83.5)	259(92.8)	11.79***	
	음복하지 않는다		48(16.5)	20(7.2)		
		계	291(100)	279(100)	570(100)	

\*  $p < .05$  \*\*  $p < .01$  \*\*\*  $p < .001$ 

\* 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나타났다. 祭日날짜는 연변대학생 가정보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祭需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간편하게',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전통의례대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祭器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일상 사용하는 그릇',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물려받은 木器나 鑪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飮福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보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음복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奉祀代數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조부모까지'의 조상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조부모 이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2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중조부모 이상'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52.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36.9%,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10.4%의 순으로 나타나서 연변의 조선족보다 한국가정에서의 奉祭祀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의 봉사대수가 '중조부모 이상'인 경우가 52.6%로 나타난 결과는 김시월(1997)의 연구에서 '중조부모 이상'이 33.5%, '고조부모 이상'이 26.7%로서 중조부모 이상의 奉祀대수가 60.2%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奉祭祀者의 경우 연변대학생의 가정에서는 '장남'이 60.4%, '차남 이하 또는 그 외'가 39.6%로 나타났으며, 한국대학생의 가정에서는 '장남'이 71.5%, '차남 이하 또는 그 외'가 28.5%로 나타나서 연변대학생 가정과 한국대학생 가정이 모두 '장남'이 奉祭祀者인 비율이 높았으나 한국대학생 가정이 연변대학생 가정보다 '장남' 奉祭祀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남이 제사의 주관자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이길표(1982)김인옥(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전통적인 가정의례가 상당히 간소화되는 추세이나 제례시 장남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변대학생 가정에서 奉祀者 중 장남의 비율이 한국가정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기제나 연결제는 제사의 의무를 가진 자손들이 공동으로 지

내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장남이 제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제들 사이에 제사를 순번제로 담당하기도 하는 중국의 제사관습(김광영, 1986)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연변대학생 가정의 경우 '음력'이 7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편리한 날'과 '양력'이 각각 13.9%와 13.2%로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음력'이 83.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양력'이 9.6%, '편리한 날'이 6.6%의 순으로 나타나서 연변대학생 가정과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모두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았으나 연변대학생 가정보다 한국대학생 가정의 '음력'제사날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祭需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전통의례대로'가 47.7%, '간편하게'가 52.3%로 간편하게 祭需를 마련하는 가정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전통의례대로'가 77.9%, '간편하게'가 22.1%로 '전통의례대로' 제사를 마련하는 가정의 비율이 연변대학생 가정의 비율보다 더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제사를 지낼 때 祭需 마련을 연변대학생의 가정에서는 '간편하게'하는 편이지만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전통의례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도 주요 祭需로는 果類, 熟菜, 飯, 羹, 湯, 脯, 炙, 餅 등으로 나타나서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수마련은 전통의례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祭器의 경우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일상 사용하는 그릇'이 66.1%, '새로이 마련'이 25.9%, '물려받은 木器나 鑪器'가 8.0%로 제사를 지낼 때 '일상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 가정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木器나 鑪器'가 49.8%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이 마련'한다는 응답과 '일상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응답이 각각 26.0%와 24.2%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즉 祭祀를 지낼 때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일상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반면 서울 대학생 가정에서는 '물려받은 목기나 鑪器'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기와 일상그

릇(31.2%)이나 '제기는 아니나 별도그릇(14.2%)'을 사용하는 가정이 '평소그릇(13.2%)'을 사용하는 가정보다 더 많다고 한 김시월(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가정의 제례형식은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飲福여부에 대하여서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음복한다'가 83.5%, '음복하지 않는다'가 16.5%로 음복을 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도 '음복한다'가 92.8%, '음복하지 않는다'가 7.2%로 음복을 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연변대학생의 가정보다 한국대학생의 가정에서 음복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사형식과 절차에서 한국가정은 연변 가정보다 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연변가정은 보다 비형식적이고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변가정의 제례실태가 유동적인 것은 제례의식을 극도로 간소화한 중국의 문화혁명기간의 영향력의 결과와 소수민족으로서 이주 후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생활양식을 현실에 맞게 개조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3. 연변과 한국 대학生の 祭禮意識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의 제례의식과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별로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의 제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먼저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전체 祭禮意識은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즉 연변대학생의 祭禮意識은 3.40점, 한국대학생의 祭禮意識은 3.18점으로 연변대학생의 祭禮意識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연변대학생의 祭禮意識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祭禮意識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祭禮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祭禮절차의식에서는 연변대학생의 祭禮절차의식은 3.40점, 한국대학생의 祭禮절차의식은 3.18점으로 연변대학생의 祭禮절차의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연변대학생의 祭禮절차의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성별에 따라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제례의식 및 하위영역인 제례관과 제례절차의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표 3〉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祭禮意識의 차이 (계 619명, 5점 만점)

집 단		변 인	빈 도	하위영역		전 체
				祭禮觀	祭禮절차의식	
				평 균	평 균	
연변 대학생		291(49.6)		3.38	3.36	3.40
한국 대학생		287(50.4)		3.45	2.99	3.18
계 및 t 값		568(100)		.98	5.38***	3.63***
男	연변 대학생	153(55.2)		3.59	3.37	3.49
	한국 대학생	124(44.8.0)		3.55	3.19	3.56
	계 및 t 값	277(100)		.36	1.79	1.35
女	연변 대학생	133(44.9)		3.28	3.25	3.32
	한국 대학생	163(55.1)		3.25	2.84	3.05
	계 및 t 값	296		.37	5.77***	3.43**

\* \*p<.05 \*\*p<.01 \*\*\*p<.001

\* 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에 여자대학생의 경우 연변여대생과 한국여대생간에 전체 제례의식(p<.001)과 하위영역 중 제례절차의식(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변여대생의 전체 제례의식은 3.32점, 한국여대생은 3.05점으로 연변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제례의식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제례절차의식에서도 연변여대생은 3.25점, 한국여대생은 2.84점으로 연변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제례절차에 대한 의식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연변대학생의 제례의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전통적인 것은 집거구 형성과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중국조선족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한국대학생의 제례의식이 연변대학생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대학생이 연변대학생보다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또한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전통성이 약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가부장적인 제례의미를 포함하는 제례관 영역에서는 연변과 한국대학생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로 제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

정을 의미하는 제례절차의식영역에서는 연변과 한국대학생간에, 연변과 한국여대생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변대학생, 연변여대생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제례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가정에서는 이미 제례절차가 많이 간소화된 상태이고, 이에 반해 한국가정은 아직 전통적인 제례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사의 주된 준비자인 여성 즉 여대생의 경우 제례절차의 간소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여대생이 연변여대생보다 제례절차에 대해 더 근대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연변과 한국 대학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에 제례교육필요성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전체 대학생간은 물론 남녀별에서도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 대학생의 경우 연변대학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표 4〉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의 차이 (계 619명, 5점 만점)

집 단	변 인	빈 도	祭禮교육 필요성인식
			평 균
	연변 대학생	281(49.3)	3.45
	한국 대학생	289(50.7)	3.83
전 체			3.64
계 및 t 값			-4.76***
男	연변 대학생	140(52.0)	3.53
	한국 대학생	129(48.0)	3.93
전 체			3.73
계 및 t 값			-3.39**
女	연변 대학생	138(46.3)	3.40
	한국 대학생	160(53.7)	3.76
전 체			3.58
계 및 t 값			-3.29**

※ \*p<.05 \*\*p<.01 \*\*\*p<.001

※ 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3.45점, 한국대학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3.83점으로 한국대학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한국대학생이 연변대학생보다 제례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도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연변남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3.53점, 한국남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3.93점으로 한국남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대생의 경우에도 연변여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3.40점, 한국여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은 3.76점으로 한국여대생의 祭禮교육필요성인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한국여대생이 연변여대생보다 제례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이 연변대학생보다 제례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가정에서 자손들에게 제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답습을 통해서 의례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례의 각각의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단순히 제례형식만을 강조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인 대학생은 조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세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제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변조선자치주내의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가정祭禮실태, 제례의식 및 제례교육필요성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상황적·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와 정치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민족의 현재의 생활상을 밝히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제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 새 밀레니엄 시대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 가정간의 가정祭

禮실태에서는 奉祀代數·奉祭祀者·祭祀날짜·祭需·祭器·飲福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奉祀代數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조부모까지',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증조부모 이상'으로 나타났다. 奉祭祀者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 '장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祭祀날짜는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음력'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祭需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간편하게',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전통의례대로', 祭器는 연변대학생 가정에서는 '일상 사용하는 그릇', 한국대학생 가정에서는 '물러받은 木器나 鎗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飲福은 한국대학생 가정에서 '음복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가정제례실태에 있어서는 한국대학생 가정이 연변 대학생 가정에 비해 더 전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의 제례의식은 전체 祭禮意識과 하위영역 중 祭禮절차의식에서는 연변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전체 제례의식과 하위영역 중 제례절차의식에서 연변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례교육필요성인식은 전체 대학생간은 물론 연변남대생과 한국남대생간, 연변여대생과 한국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이 연변대학생보다 제례교육필요성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제례실태는 연변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가정의 경우 이주민으로서 경험한 중국의 사회변화와 적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모국의 전통을 실생활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祭禮儀式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고 적용되는 생활문화로서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례의식 중 가부장적 제례를 의미하는 제례관에서는 연변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제례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제례절차에 대해서는 한국대학생, 특히 한국여대생

의 경우 더 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주된 임무를 담당하는 주부가 제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제례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 모두가 제례형식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례절차의 간소화 또는 현실화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변대학생보다 한국대학생이 제례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제례를 포함한 가정의례가 경험을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차원이 아니라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의례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의 이해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의례의 형식과 절차는 시대적·지역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제례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적합한 제례형식과 절차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중국조선족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제례의 형식, 절차를 조정하되 그 본질적 의미를 살리고 제례를 통해 조상과의 연결을 확고히 함으로써 동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로서의 제례의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변과 한국의 제례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례의 의미나 그 본질에 있어서의 연변과 한국을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례의 형식과 절차에서라기보다는 제례의 의미에서 연변과 한국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변과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은 물론 기성세대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익(1986).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 한국과 중국의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제18권, 109-128.
- 2) 김득중·유송옥·황해성(1996).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3) 김명자(1983). 祭禮를 보는 현대인의 시각. 전통문화 31.
- 4) 김승철(1997). 연변조선족 가정도덕 건설의 현황과 과제. 북한경제 2(20). 한세정책연구원, 28-31.
- 5) 김시월(1997). 제사의 행태와 제사의 지속성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지, (20), 건국대학교, 67-92.
- 6) 김인옥(1997). 전통祭禮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祭禮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인옥·이길표(1998). 전통祭禮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 51-63.
- 8)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祭禮행례의식과 祭禮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서봉자(1983). 조상숭배 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신승철·이종섭·이호영(1994). 한국과 중국 연변 조선족의 가족 기능 비교. 최신의학, 37(1).
- 12) 안혜숙(1993). 석기시대 신앙 및 제의와 가정생활문화.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이광규(1995). 세계화와 재외한인가족, 가족학는 집, (7), 325-332.
- 14) 이길표(1982). 家禮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혼·祭禮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이길표·김인옥(1997). 擊蒙要訣에 나타난 祭禮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59-70.
- 16) 이정우 외 공저(1996). 생활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17)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 구지, (8),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3-50.
- 18) 이현숙(1983). 제사를 통한 당내친 협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정관웅(1997). 재중동포의 가치관 변화와 민족정체성 문제. 교포정책 자료(55).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5-19.
- 20) 조복희 · 이재연 · 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21) 한경순(1986). 혼·상·祭禮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한상복 · 권태환(1994).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①. 서울대학교 출판부.
- 23) 허성미(1987). 祭禮에 대한 도시주부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례관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